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13>

금강제비꽃

• 학명 *Viola diamantica*



김재황(시인)

우리나라에는 제비꽃 종류가 많다. 그
 U 중에는 남산제비꽃·태백제비꽃·서
 울제비꽃·광릉제비꽃·장백제비꽃 등의 우
 리나라 지형을 따서 붙인 이름을 지닌 제비
 꽃들이 있다. 이들은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보
 아서, 그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식물들은 모두가
 우리나라 특산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강제비꽃도 마찬가지이다. 금강산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여, 그 이름을 얻었
 을 성싶은데, 설악산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
 다. 이 또한 강원도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이다. 다른 제비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잎자루가 긴 편이고 잎사귀가 심

장꼴을 이루고 있어서 귀엽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줄기는 보이지 않는다. 6월에서 7월에 걸쳐 잎 사이로부터 짧고 가는 꽃줄기를 뽑아내고는 그 끝에 자줏빛 꽃을 하나씩 피운다. 열매는 삭과이다.

금강제비꽃과 고깔제비꽃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다. 고깔제비꽃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다. 고깔제비꽃은 근경(根莖)이고 보통 제비꽃인데 비해, 금강제비꽃은 지하경(地下莖)을 지녔고 폐쇄화(閉鎖花)이다. 폐쇄화는 꽃부리를 벌리지 않고 자화수정(自化受精)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꽃을 말한다. 제비꽃 종류에는 폐쇄화를 지닌 것들이 많다. 봄에는 보통의 꽃을 피우고 나서 여름에는 다시 폐쇄화를 피우기도 한다.

어떻게 꽃부리를 벌리지도 않고 열매는 맺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으로 친다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낳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기는,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전설도 있다.

옛날,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에 예(穢)라는 나라가 있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

려니까, 크기가 박만한 알 한 개가 떠 내려오는 것이었다. 노파는 그 알을 건져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그 알이 깨어지며 그 속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방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노파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여겨져서, 애지중지 길렀다. 그 아이가 대여섯 살이 되자, 그 키는 8척이나 자랐다. 얼굴빛은 거무스름하여 제법 어른티가 났다. 노파는 아이의 얼굴이 검었으므로 그 성을 여(黎)라고 지었다. 이름은 용사(勇士)라고 불렀다. 그 당시 예나라에는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쳤다. 그 소문을 듣고, 여용사는 나섰다. 호랑이는 짐체만한 대호(大虎)였으나, 한 주먹으로 때려잡았다.

아, 금강제비꽃은 이 이야기를 알고나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강원도 지방에 가고 폐쇄화를 지닌 금강제비꽃에서 강원도 지방에 살았으며 알에서 나온 여용사를 떠올리는 것을 나는 그리 큰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